남도의 길

〈15〉섬진강 문학마을길

순창 구미마을~향가

무량사에서 바라본 섬진강 풍경. 멀리 적성교 넘어 푸른들판과 강, 산과 길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눈부신 물길따라 굽이굽이 정겨운 옛이야기

구암정·어은정…발길마다 조선시대 정자 산재

꽃여울·달여울 강가 마을마다 한폭의 수채화

순창 장구목 향가리로 이어지는 물길은 섬진강에서도 옛 정취가 살아있는 길이다. 섬진강 문학마을길 2구간인 구미마을~구암정~어은정~적성교~향가(약 18km)코스는 마을과 마을을 이어가며 아름다운 풍광과 구수한 이야기를 낳고 있다.

특히 이 구간은 강을 중심으로 구암정, 어은정 등 조선시대의 정자가 산재해 있고, 구릉과 산이 어울러져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강물따라 숨은 이야기를 찾아가는 길=장구목에서 구미마을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호젓한 오솔길이다. 강변을 따라 마을 가는 길에 마음도 차분하게 흘러간다.

천천히 걷다가 고갯마루를 넘어서면 눈앞에 논이 펼쳐지고 순창 동계면 구미(龜尾)마을 입구에 이른다. 마을 입구에 거북이 모양의 자연석이 있고, 남근석이 나란히 마을을 지키고 서 있다. 거북바위에는 이 마을의 유래담이 전해온다.

마을 너머에 취함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매일 구미마을에 와서 시주를 해갔단다. 스님이 가만 보니 거북이 꼬리가 마을을 향하고 있어 마을은 잘 살고, 절은 빌어먹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 거북이 꼬리를 홱 돌려서 절 쪽으로 해놓았단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절이 번성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눈치를 채서 거북이 꼬리를 마을 쪽으로 돌려놓으면 밤중에 절에서 또 돌려놓고 자꾸 되풀이 싸움을 하게 되었단다. 그러다 스님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거북이 머리를 내리치니까 똑 부러져버렸다고. 그 뒤 절은 망해서 없어져 버렸고, 마을은 그럭저럭 잘 살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무량산(650m)이라는 큰 산 아래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로 남원 양(楊)씨가 600여 년간 집성촌을 이룬 명당이다. 선조들은 이 마을의 터를 풍수상 '금귀몰니'(金龜沒泥·금거북이가 꼬리를 감춘 형상)'의 길지로 여기고 수 백 년을 평온하게 살아왔을 것이다.

장수마을로 알려진 이곳은 언론에 장수의 원천으로 보고된 630년 넘은 특별한 우물이 소개돼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정자에 앉아 시주(詩酒)에 취해볼까=강이 만들어낸 풍경은 자연스럽게 정자를 세우게 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품어 보려는 마음은 인지상정인가 보다.

구암교 바로 옆으로 난 강둑을 따라가면 구암정이다. 안내판이 따로 없어 지나치기 쉽다. 구암 양배의 학문과 덕망을 추모하기 위해 1898년에 세운 정자라고 한다. 양배는 아우와 함께 이곳에서 평생 고기를 낚으며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 섬진강 물줄기를 바라보며 잠시 쉬니 새순이 트는 소리, 꽃이 피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을 듯하다.

강은 다시 길을 열어 어은정 앞에 이른다. 전북 문화재 자료 제132호인 어은정은 조선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해 영광군수, 병조정랑을 지냈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운 어은 양사형(1547~1599년)이 지은 정자이다. 처음에는 영하정이라 이름 지었다가, 후손들이 어은정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건물은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정작 주변에는 100년은 족히 넘은 듯한 백일홍 수 십그루가 심어져 있어 운치를 더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강변을 내려다 보며 시주(詩酒)에 취했을 선연들의 모습이 선하다.

◇꽃여울, 달여울 강가의 아름다운 마을=강은 다시 속도를 내어 작은 들판을 향해 내달린다. 그러면서 점차 폭을 넓히고 유량도 많아진다. 어은정에서 적성교, 유촌대교에 이르는 강변은 연둣빛 버드나무와 청명한 하늘, 산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적성교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줄곧 책여산(冊如山·330m)을 보며 걷는 길이다. 산의 모습이 책을 쌓아놓은 것 같다고 하여 책여산. 바위들이 책을 쌓아 놓은 것처럼 차곡차곡 나란히 서 있다. 동네어른들은 이 산을 아름답다고 화산(華山)이라고 부른단다.

멀리 강물 위를 거닐 듯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들을 돌아보는 이들도 있고 볍씨 파종을 위해 여럿이서 흙을 채에 고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눈부신 풍경화가 되는 시간이다.

길을 벗어나 잠시 무량사에 들렀다. 화산 아래 있는 절마당에서 굽어보는 강 풍경이 한폭의 산수화다.

24번 국도를 따라 적성면 방향으로 20여분을 걸은 뒤 유적교를 건너면 무수리(無愁里) 입구. 시름이 없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우회해 강둑을 따라 걸으면 화탄(花灘·꽃여울)마을이고 다시 10여분을 걸으면 월탄(月灘)마을이다. 일명 달여울이다. 강이 굽이치며 돌아가는 곳에 강을 보며 들어선 마을이다.

강을 따라 30여분 이번엔 유촌대교다. 다리를 건너서 보니 멀리 유촌마을과 책암마을이 자리해 있다. 고뱅이유원지를 지난 강변에는 섬진강군민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짙푸른 물색 황홀한 풍경에 넋을 잃고=유등면을 거쳐 향가마을로 향한다. 유등면과 풍상면 사이에 경천이 흐르는데 금성산성의 강천사로부터 흘려 내려온 경천은 대풍교에 이르기 전에 섬진강과 몸을 합한다.

전북 문화재 자료 제132호인 어은정은 조선 선조 때 문신인 어은 양사형이 지은 정자이다.

대풍교를 지나면 남원시 대강면이다. 임실 순창을 흐르던 섬진강이 옥출산(224m) 아래에서 한바탕 휘돌며 향가유원지를 만들고 이곳부터 강은 전라남북도의 경계를 이룬다.

예부터 경치가 좋아 시인과 무객, 천하의 풍류 한량들이 뱃놀이를 즐겼던 곳이라고 한다. 각처의 기생들이 수없이 몰려들자 아예 지명을 '향가'(香佳·향기로울 香 아름다울 佳)로 부르게 되었다.

향가마을의 섬진강변은 여름이면 인근 주민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곳이다. 저녁 노을에 사공이 배를 띄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곳은 지금은 낚시터로 유명하지만 기암절벽, 노송들이 어우러져 내륙의 해수욕장으로 불릴 만큼 경관도 수려한 곳이다.

여기서부터 섬진강은 제법 수심이 깊은 소를 만들고 있다. 봄기운을 듬뿍 받은 강물은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진초록빛이었다

근처에 터널이 있고, 시멘트 교각이 강을 가로지르며 서있다. 일제강점기에 임실, 순창 일대의 곡식을 수탈하기 위해 광양까지 이어지는 철로를 놓으려다가 해방이 되면서 공사가 중단돼 교각만 남아 있는 것이다. 교각만 남은 강변의 풍경은 흉물스럽다기보다는 이색적이고 독특한 느낌이다.

강변에서 만난 주민은 이즈음 초록물 위에 카약을 띄워놓고 봄의 정취를 즐기는 호사스러운(?) 분들이 간혹 찾는다고 귀띔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